

중국, 대학에도 공산당 이념교육 강화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교수들 현재 사안 코멘트 금지” “마르크스주의 정부 지원 혜택”

중국 사정기관이 교육부와 명문대학들에 학내에서 공산당 이념교육과 규율 강화를 지시했다.

7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공산당 기술검사위원회(기술위)는 교육부 관리와 31개 대학을 상대로 5월부터 두달간 진행된 감찰 결과를 지난 5일 발표했다.

31개 대학은 베이징대, 칭화대, 푸단대 등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이 직접 운영하는 곳이다.

기술위는 “정치와 이념을 중심으로 부

리깊은 여러 문제가 공통적으로 발견됐다”면서 “일부 학교는 새 시대 이념교육에 게임을 피웠고 이는 다양한 수위의 숨은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엄격한 당의 통제가 이뤄지지 않았고 과학연구와 인프라 투자에서의 부패 같은 문제가 지속됐다”고 부연했다.

기술위는 그러면서 대학 캠퍼스에서 공산당 이념교육과 규율을 강화하도록 지시했다.

기술위는 2017년부터 명문대에 감찰관을 보내왔다.

홍콩 싱크탱크 텐다연구소의 우젠페이 부소장은 중국 공산당이 오는 11월 19기 중앙위원회 6차 전체회의(19기 6중전회)를 앞두고 대학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

고자 한다고 봤다.

우 부소장은 “당의 지난 100년의 성과에 관한 결정을 채택할 것으로 전망되는 6중전회를 앞두고 당 지도부가 정치적 안정을 위해 열성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몇개월간 매스미디어와 TV, 영화 분야에서는 이념 정화 작업 결과 굵직한 성과들이 나왔지만 과거 정치·사회적 운동에서 종종 핵심 역할을 해온 대학들은 여전히 (당의) 주요 우려사항으로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12년 말 집권한 이래 대학 교수들은 보편적 가치, 언론의 자유, 시민의 권리 등 민감한 주제와 거리를 두라는 이야기를 들어왔다고 SCMP는 전했다.

시 주석은 2016년 “정확한 정치적 방향을 단호히 수호하고 당의 강령이 학생과 교직원 마음에 새겨지도록 함으로써 대학이 당 지도력의 강력한 기반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명을 요구한 베이징대 철학 교수는 SCMP에 “서양 철학이나 예술과 관련된 과목을 가르치는 이들은 승인된 커리큘럼에 따라 교과서대로만 가르쳐야 하고 현재의 사안과 관련해서는 코멘트를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마르크스주의나 중국 고대 철학을 가르치는 이들은 운이 좋다”며 “중국 정부가 지원하는 과학기술 연구를 수행하는 교수들처럼 그들도 바뀐 흐름에서 혜택을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이탈리아, 코로나로 기대수명 1.2세 단축

최대 피해지역 북부 베르가모 남 4.5·여 3.2세 가장 낮아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일본에 이어 세계 두 번째 장수 국가인 이탈리아의 기대 수명까지 끌어내렸다.

ANSA 통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탈리아통계청(ISTAT)은 작년 이탈리아인의 기대 수명이 2019년 대비 1.2세 줄었다고 6일(현지시간) 밝혔다.

기대 수명은 해당연도 출생아가 앞으로 생존할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연수다.

작년 기준 이탈리아인의 기대 수명은 남성 79.7세, 여성 84.4세였다.

ISTAT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사망 위험도의 급격한 상승이 기대 수명 단축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역별 기대 수명 통계에서 확연히 드러난다.

작년 코로나19 최대 피해지역으로 꼽히는 북부 베르가모는 남성의 기대 수명이 4.3~4.5세, 여성이 2.9~3.2세 각각 낮아져 전국에서 하락 폭이 가장 컸다.

베르가모는 바이러스 사태로 이탈리아인들이 경험한 비극을 상징하는 곳이다.

바이러스 확산세가 절정으로 치닫던 작년 3월 지역 신문 10여 개 면이 부고로 채워지는 가하면 넘쳐나는 시신으로 화장장 업무가 마비돼 수많은 시신이 다른 지역으로 옮겨져야 했다.

당시 군용차량이 즐비해 시신을 이송하



마스크는 어디에? 6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모니카 부두와 해변에 노동절을 맞아 인파가 몰려 있다. 이곳을 찾은 대부분의 주민들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모습이다. /산타모니카 EPA-연합뉴스

는 장면은 전 세계적으로 큰 안타까움과 슬픔을 자아냈다.

6일 현재 이탈리아의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3,361명, 사망자 수는 52명이다. 누적으로는 각각 457만4,787명, 12만9,567명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사망자는 작년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월간 기준으로 평균 7,200명 수준이다. /연합뉴스

세계 최고 부자 제프 베이조스 ‘블로장생 연구’에 수십억 투자

세계 최고 부자인 제프 베이조스야 마존 창업자가 이번엔 블로장생 연구에 관심을 두고 수십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일간 더타임스는 베이조스가 유전자 리프로그래밍(reprogramming) 스타트업인 ‘알토스 랩스’(Altos Labs)에 수백만 달러를 최근 투자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실리콘밸리에 있는 이 스타트업은 러시아 출신 IT 거물인 유리 밀너가 세웠으며, 영국, 일본에도 연구소를 개설한다는 계획이다. 최근에는 세계적 수준의 유전학 과학자들을 영입했으며, 블로장생의 비밀을 연구하려 한다고 더타임스는 전했다.

베이조스는 지난 7월 아마존 최고 경영자(CEO)에서 물러난 가운데 노화 예방에 매료됐다고 한다.

그는 거의 2,000억 달러에 이르는



재산 중 수백만 달러를 자신의 투자사인 ‘베이조스 엑스피디션’을 통해 알토스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알토스가 투자 받은 돈은 최소 2억7,000만 달러(3,128억원)에 이른다고 미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기술 잡지인 MIT 테크 리뷰는 전했다.

알토스는 올해 초 설립됐으며, 과학자들에게 연봉 100만 달러(11억원)를 제시하며 영입에 나섰다 이 잡지는 덧붙였다.

베이조스는 2018년에도 항노화 신약을 개발한다는 바이오테크 기업 ‘유니티 테크놀로지’에 투자한 적이 있다. /연합뉴스

태국 부패 경찰 재산이 무려 214억

호화 주택에 고급차 추가 발견 마약·밀반입 용의자 뇌물 의혹

태국에서 마약 용의자에서 돈을 뜯어내기 위해 머리에 비닐봉지를 씌워 고문하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은 한 ‘부패 경찰’의 재산이 어마어마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일간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태국 경찰은 티피산 우타나폰(39) 전 경찰서장이 최소 6억 바트(약 214억원)에 달하는 재산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날 밝혔다.

티피산 전 서장은 지난달 초 북부 나콘 사완 경찰서에서 마약 용의자 차라폰 타나피팟(24)을 고문하다가 숨지게 했다.

그는 이 용의자에게 200만 바트(약 7,000만원)를 뜯어내려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장면이 담긴 경찰서 내 폐쇄회로(CC)TV 영상이 한 경찰관의 ‘공의 제보’로 같은 달 하순 공개되면서 태국 사회에 파문이 일었다.

경찰은 티피산 전 서장의 재산은 용의자 체포 보상금과 고급 차량 압류 및 경매 과정에서 나왔다고 밝혔다.

언론에 따르면 그는 지난 2011년부터 약 7년간 밀반입된 고급차 368대를 압류해 처리하는 업무를 맡았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티피산 전 서장이 압류해 처리한 밀반입 고급차가 모두 410대로 늘어났다면, 이와 관련한 돈의 흐름을 계속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 그의 호화 주택에서 고급차 5대가 추가로 발견됐다고 덧붙였다.

용의자 고문 살해 사건 이후 현지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티피산 서장의 월급은 4만바트(약 143만원) 정도였다.

그러나 방콕에 있는 그의 고급 주택 가격만 해도 6,000만 바트(약 21억원)에 달했고, 집에는 람보르기니와 페라리 등 고급 외제차가 13대나 있었다.

이 차들의 가격만 해도 1억 바트(약 36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은 티피산 전 서장을 ‘조 페라리’라는 별명으로 부르기도 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티피산 전 서장이 4명의 다른 마약 용의자들로부터 뇌물을 받았는지 여부를 포함해 다른 비리 행위 의혹들도 조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www.jndn.com 인터넷으로 기사를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알뜰한 정보! 행복한신문!

직장인 “출근이 좋아요”... 외식업계 올라

“민생경제 회복 제정기인 확대”

전남농협 협소세 추진운동 발원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콘텐츠의 구세주”

상쾌한 아침을 여는 신문!
독자에게 새롭게 정확한 뉴스!!
소신과 대안이 있는 정보!!!
따뜻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로 여론을 선도하며,
소통과 화합을 통해 지역신문 발전에 큰 힘이 되겠습니다.

◆ 사·군지사

광산지사	010-3601-1102	장흥지사	010-3613-6114
목포(갑)	010-3272-2765	강진지사	010-6646-1241
목포(을)	010-3635-6777	해남지사	010-8181-2627
여수지사	010-8648-1236	영암지사	010-4624-8409
순천지사	010-2547-7890	무안지사	010-3621-8989
나주(갑)	010-7706-2410	함평지사	010-3600-0500
나주(을)	010-3713-7458	영광지사	010-8666-2882
담양지사	010-8004-9885	장성지사	010-3666-1300
곡성지사	010-6764-6100	완도지사	010-5619-7020
구례지사	010-6636-3039	진도지사	010-3624-4777
고흥지사	010-9151-2828	신안지사	010-4627-1472
화순지사	010-3100-0386	보성지사	010-5259-6441

M 전남매일

본사 주소 : (우)61639 광주광역시 남구 전번로 398 (사동)
 기사제보 : T. 062-720-1050 / F. 720-1080 / jndn@chol.com
 광고문의 : T. 062-720-1017 / F. 720-1020 / jnmi1000@hanmail.net